



요약

사설

형제애의 누룩.

양성 여정

가장 귀한 은총: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기쁨(신학적 덕목).

알아봅시다

마다가스칼의 아드마.

믿고 맡기고 미소 짓자

ÁNGEL FERNÁNDEZ ARTIME 총장 신부의 편지.

아드마 입회지원자 양성

회의 신원과 목적.

가족의 연대기

- 북베트남 - 살레시오 가족의 날.

- 발도코 살레시오 가족 영성의 날에 참여한 ADMA.

사설

P.1

형제애의 누룩

사랑하는 ADMA 신심회원 여러분,

P.2

우리는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탄생 400주년을 열심히 살았고, 성 요한 보스코의 대축일을 보냈으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회개와 사막의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존재를 영원히 변화시킬 약속의 사건입니다.

P.6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스트렌나의 말씀이 다시 울려 퍼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고립된 초대가 아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여정과 함께 하며, 우리가 매일의 작은 부활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할 수 있게 합시다.

P.8

P.9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속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광대한 것들로 인해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갈 길을 잃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지닌 필요한 존재이며, 우리 스스로 조용하지만 신비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P.10

P.11

하느님의 나라는 성서 말씀대로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루카17,20-21)

작지만 생명을 주고, 기쁨지게 하고, 발효시키고, 부풀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용기를 청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사순시기에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부풀어 오르는 누룩의 기적이 다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합니다.

1.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누룩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누룩이 될 수 없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에만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2. 누룩은 천의 작은 먼지 같은 얼룩 또는 부수어지기 쉬운 부드러운 반죽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평화가 찾아오고, 가난이 줄어들고, 창조가 존중되도록 연합하여 공동 책임성을 가지고 협력합니다.

3. 누룩은 그대로 두면 썩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효모를 밀가루와 혼합합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선입견 없이 사람들과 함께 할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향기롭고 쪼개어진 빵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4. 끝으로 가장 가치 있는 빵은 기다리는 시간과 휴식의 섬세함이 필요함을 알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의 활동, 노력, 결심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마리아처럼 기다리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아름다움을 읽으면서, 오직 하느님의 때에 밀가루가 부풀어 오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좋은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드마 프리마리아 회장, 레나토 발레라
아드마 프리마리아 영적활성자, 알렉산드로 구에바라

양성 여정

가장 귀한 은총: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기쁨(신학적 덕목)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또한 깊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느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능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A. Louf).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정과 못된

욕심과 이상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따위의 욕망은.

그리고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으로 갈아 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와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이스인과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외국인, 야만인, 노예, 자유인 따위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로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십니다. (골로 3, 1-5.9-11).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 벗어나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필립 4:4-7).

1.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잇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는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세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소명, 즉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시다. (...)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시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시다.” 똑같은 사도인 저자는
1코린토 6,19~20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시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영적 생명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은 깊은 신심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더디게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마르
8,34 이하 참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물러나야 할까요? 1고린토 1장을 통해 이를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셨습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시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전
1:30-31). 내가 나 자신을 위한 나의 지혜, 정의, 거룩함,
구속을 포기할 때,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서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옮겨 가십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 재산임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이 하느님인



체하거나 귀족인 양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거나 -본의 아니게 지나가는 세상의
축제에서 죽을 운명에 놓인 사람들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향수에 젖어 저
멀리 세상의 개울 저편에 남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기쁨은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그분과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그분 현존의 열정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니니베의 이삭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
사랑하는 이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또한 기쁨은 열정에서
나옵니다. 열정이 없는 곳에는 기쁨도 없기 때문입니다.”

2. 신앙, 희망, 사랑의 삶

영적인 사람, 곧 은총을 첫 자리에 두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머무르게 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의 지혜를
깨닫고, 보다 어려운 상황들 안에서 초자연적 직감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중재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역에서
일하던 아주 단순한 복녀 에우세비아 팔로미노 수녀의 예를
들어보면, 자신들의 신앙여정을 위한 조언을 청하기 위해,
사제, 신학생, 소녀들이 에우세비아 수녀를 찾아왔습니다.
하느님과 그녀의 깊은 일치하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원천에서만 길어 올릴 수 있는 지혜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바오로가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합니다”(1고린 2:6)라고 말할 때 그는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앙 과 영적 체험은 새로운 지식의 원리가 되며, 이 새로운
지식은 이성의 지평을 넓혀주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부활하신 분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갖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행동, 감정, 존재 방식과

연결된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르코 8,33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질책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스도께 대한 메시아적 믿음을 고백한 후에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오히려 예수님의 길에 걸림돌이 될 논리에 따라 생각합니다.

신앙의 덕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인도해주며,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베네딕토 16세의 서명이 담긴 초안인 그의 첫 번째 회칙인 신앙의 빛(Lumen Fidei)에서 이 문제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이 문헌의 18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는 분, 곧 하느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실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를 일치시키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듯이 그분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방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 아는 다른 이들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집을 짓는 건축가, 약을 조제해 주는 약사, 법정에서 우리를 대변해 줄 변호사를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느님과 관련된 일에서도 우리는 믿을 만하고 식견이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려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 1,18 참조). 그리스도의 삶, 곧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분의 길은 인간 체험에 새로운 영역을 열어주며, 우리도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희망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선이 숨어 있고, 희망 자체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히브 11:1).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시작이며 마침”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정확히 그리스도의 마침이며, 부활의 참된 시작인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근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마침”을 체험하게 들어 높혀 줍니다. 희망의 하느님께서 삶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창조하십니다. 앞으로 오게 될 그의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희망은 “앞으로 던져진 믿음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이자 개종자인 샤를 페기는 그의 저서 “두 번째 덕의 신비의 문”에서 믿음과 자선이라는 두 언니와 악수하는 어린 소녀로 희망을 표현합니다.

작은 희망.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언니들 사이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본다. 걸을 힘이 없는 어린 소녀처럼.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길로 간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사람을 걷게 만드는 것은 그녀이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끌어당기는가? 끌어당김이 모두를 걷게 하고 있다. 그들을 동생이 끌어당기고 있다. 어린이만 일하고 있다. 하지만 언니들은 동생을 위해서만 걸어간다(...) 희망은 저절로 걸어가지 않는다. 소녀가 희망을 가지려면 아주 행복해야 합니다. 큰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기쁨이 신앙의 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희망이 이루어지려면 행복해야 하며 사랑받고 있다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은총의 삶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아가페 안에서 모든 덕은 성 바오로의 사랑에 대한 찬가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1코린 13,13) 이유를 아십니까?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 즉 성령님, 그분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과 같고, 쓸모 없으며, 어둡고, 충만함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출발점은 항상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관계, 내 자신의 삶은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출발점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자 안에서 구원하셨으며, 성령과 함께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니다.

“결국, 시작”



그분의 사랑 안에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 가지, 즉 소속감, 의미, 목적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소속감: 오직 사랑만이 우리 삶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게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한 존재입니까?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의미: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의미로 채웁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영적, 심리적 병의 대부분은 그들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목적지: 세 번째 특성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 각자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당신이 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깨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끌어당기며 이것이 은총의 우위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자유의 투신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덕목이 없으면 사랑은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감정의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더 나쁜 것은 감정입니다.

3. 열매인 기쁨

믿음, 희망, 사랑으로 사는 삶의 열매는 기쁨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표지가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의 저서복음의 기쁨의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와 슬픔, 내적 공허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납니다. (...)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온갖 극심한 소비주의와 더불어 개인주의적 불행입니다. 이는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립된 정신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적 생활이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그분 사랑의 고요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선행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 버립니다. 이는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많은 이가 이러한 위험에 빠져 삶을 잃어버리고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품위 있고 충만한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도 아니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도 아닙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초대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시는 기쁨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¹⁾ 때문입니다.” (1-3항).

신학적 미덕으로 알려진 삶과 기쁨 사이의 연결은 단테가 신곡에서 낙원의 정상 부근에 있을 때의 묘사를 통해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24곡). 그의 특별한 여정의 끝에서 그는 세 명의 사도로부터 세 가지 신학적 덕목에 대해 질문을 받습니다. 성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를 조사합니다. 그는 그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부여받았는지 묻고 단테에게 어디서 얻었는지 묻습니다. 사도의 왕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공식화합니다. “모든 덕의 기초가 되는 / 이 소중한 기쁨을 / 어디서 얻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기쁨”은 복음이 말하는 귀중한 진주, 즉 기쁨/보석이며, 나머지 모든 것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 획득할 보석임이 분명합니다. 코미디의 또 다른 구절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이 시작될 때 지옥의 제1곡에서 단테는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고 사람을 만나자 도움을 청합니다. 버질은 그에게 왜 “즐거운 산/ 모든 기쁨의 원리이자 원인”인 산에 오르기로 결정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통로를 막고 있는 세 마리의 짐승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오르지 못했으며 따라서 피렌체 시인은 “또 다른 여행”에 동행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를 성 베드로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믿음의 진주/기쁨을 찾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기쁨, 아니 더 나은 행복이 목표인 여정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다른 모든 미덕의 기초가 되는’ 우리에게 소중한 행복인 ‘기쁨입니다.’ 믿음이 참되지 않으면 세상은 죽음에 이를 것이며, 우리는 온전한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랑조차 누릴 수 없습니다. 다른 미덕들은 신앙의 기쁨, 인간성과 삶의 모든 단계에서 성장하려는 열망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돈



보스코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은총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기쁨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진리를 많이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헌신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즐겁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 서로 만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만족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현실주의적인 말로 이 성찰을 끝내고자 합니다.

“할 수 있다면 기쁨과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항상 기쁘게 살 수 없다고 해도 용기와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개인기도와 묵상을 위해서

1.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2. 하늘이 주신 선물이지만, 나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이 덕들을 성장시키는 데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3.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서 믿음과 희망, 사랑을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4. 나는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달의 약속

매일 저녁 기도할 때, 받은 선물에 감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알아봅시다

마다가스칼의 아드마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어디 출신이신가요?

저는 마다가스카르 사람입니다.

- 신부님의 삶과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돈 보스코의 살레시오 수도회 사제입니다. 저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성사를 받았고, 신심단체에서 활동했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 2006년에 수도회에 입회하였습니다.

- SDB로 서원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SDB에 2006년에 입회했고, 2010년 9월 10일에 첫 서원을 했습니다.

- 신심회를 지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2년 동안 MDG 대리관구에서 ADMA 활성화자로



일했습니다.

- 이전에는 어떤 사목을 하셨나요?

이전에는 CMB회를 담당했습니다. 사제로서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드마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죠.

- 마다가스칼에서는 심심회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우리 관구에서 ADMA 신심회는 안타나나리보, 베타포-안치아베, 마하장가의 세 지역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전 관구 Armand RANDIMBISOA에서는



2019년에 ADMA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ADMA의 영성에 관심을 가져 협회가 발전했습니다.



- 현재 얼마나 많은 그룹이 있고 몇 명의 회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에서 말했듯이 그룹은 세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더 많습니다. 정확한 회원 수는 모르겠지만, 서약자가 25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전체 회원은 4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 신심회는 관구와 지역신심회 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회 차원에서 조직을 체계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적 활성화(SDB 또는 FMA)와 ADMA의 지회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정도의 조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구 차원에서 ADMA 관구위원회와 관구담당자를 두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회평의회는 매월 24일에 월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 신심회에서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신학생이었을 때 성모 마리아의 생애를 광범위하게 연구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수도회에서 사제 양성 과정 중 받은 교육으로 나는 신심회의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살레시오 가족의 다른 그룹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살레시오 가족 피정, 살레시오 축제, 양성 등 항상 함께하는 교류와 활동이 있습니다.

-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미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성모님께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도전은 우리의 영성을 잘 삶으로써 증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기도와 형제애의 생활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항상 교리 교육과 여러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 젊은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을 신심회에 초대하고 교리 교육과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신앙에 대해 배우도록 초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프리마리아 아드마가 세계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그룹 간의 공유 및 대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안할 사항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ADMA가 활성화와 대화를 통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소식들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회원들을 격려해 줍니다.

P. SOLONIRINA Berthin, ADMA-MDG 영적 활성화자

믿고, 맡기고, 미소짓자

ÁNGEL FERNÁNDEZ ARTIME 총장 신부의 편지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돈 보스코는 “훌륭한 방식으로 젊은이들,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대한 특별한 신심의 촉진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창립자는 새로운 형태의 사도직을 일으키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살레시오 가족이 탄생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난 1869년 4월 18일에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를 설립했습니다.

돈 보스코가 쓴 글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수세기에 걸쳐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은총의 중개자라는 모성적 사명을 계속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어머니에 관해 말해줍니다.

돈 보스코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구체적인 마리아의 현존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의 삶을 살았고 그의 일을 완성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살레시오회의 “창립자”이며 “후원자”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총장신부님은 성모 마리아의 중재로 하느님의 도구가 된다는 돈 보스코의 생각을 설명하면서, 돈 보스코가 직접 살았던 신앙 여정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862년에 돈 보스코는 성 프란체스코 살레시오 성당이 살레시오 회원들과 발도코의 소년들에게 너무 작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큰 성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해 마드레 마자렐로와의 만남은 여성 세계로의 살레시오 카리스마 확장의 시작을 나타내며, 이어서 ADMA와 살레시오 협력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성전 건축과 함께 돈 보스코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성모님의 적극적인 현존을 체험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감동적입니다. 착한 피에몬테인인 돈 보스코는 종종 그랬듯이 일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재정적 지원의 약속을 하고, 그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되자, 혼자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때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돈 보스코의 일곱 번째 후계자인 돈 에지디오 비가노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와 그녀의 많은 위대한 계획들, 특히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회, FMA 수녀회(살레시오수녀회), 위대한 살레시오 가족의 사업들은 이것이 도움이신 마리아의 도움의 손길의 시작에 불과했음을 압니다.”

안드레아와 마리아 아델레 다미아니

아드마 입회지원자 양성

회의 신원과 목적

토리노 발도코의 프리마리아가 입회지원자에게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두 번째 요점은 ADMA의 신원과 목적을 주제로 하는 신심회 규정의 2조입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유형의 신심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신심회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목적과 독창성을 유지하며 무엇보다도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정치적 성격이나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드마는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심회는 항상 자신을 쇄신하도록 노력하며, 돈 보스코가 부여한 목적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창립자가 원하는 카리스마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ADMA를 교회법에 따라 설립된 신자들의 공공단체로서 교회법인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신심회는 교회의 어머니이신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신심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첫 번째는 신자들에게 성덕의 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서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며 성덕이라는 같은 소명으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 거룩함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거룩함은 하느님과 친교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사랑의 총만함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돈 보스코 안에서 거룩함은 특히 목자적 사랑, 사도직 및 교육적 헌신, 가족 정신,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와 도움, 그리고 단순함 속에 사는 신심 실천에서 확인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창립자의 발자취를 따라서 ADMA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거룩함의 길은 사도적이므로, 사람들을 살레시오 가족의 영성과 사명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룩함의 길을 제공하려는 신심회의 목적은 특히 두 가지 특별한 수단을 통해 추구됩니다. 복되신 동정녀에 대한 신심 확대와 성체 안의 예수 공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ADMA를 성체-마리아 그룹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체신심과 그리스도인의 원죄 없으신 도움이신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신심회의 영성과 삶의 기초가 됩니다. 돈 보스코가 그의 유명한 꿈에서 본 교육 체계와 살레시오 영성의 두 기둥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교황이 이끄는 교회를 대표하는 배가, 배를 침몰시키려는 적의 배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서로 멀지 않은 곳에 매우 높은 두 개의 굳건한 기둥이 파도 위에 솟아오릅니다. 그 위에는 “AUXILIUM CHRISTIANORUM”(“신자들의 도움”)이라는 큰 글씨가 새겨진 원죄 잉태되신 성모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이보다 훨씬 더 높고 더 컸으며 그 꼭대기에는 큰 성체가 보셔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SALUS CREDITIUM”(“믿는 이들의 구원”).이라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배의 상황은 더 빠졌고, 적의 공격으로 인해 자신의 충실한 군사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뱃머리에 매달린 쇠사슬을 성체 기둥과 또 다른 쇠사슬은 반대편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기둥에 닿을 내립니다. [...] 그러자 적의 배들이 달아나고, 흩어지고, 충돌하고, 서로를 박살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교황이 적의 총에 맞았고, 교황은 갑판 위에 쓰러져 숨을 거둡니다. 그러자 적의 함대에서 기쁨과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교황의 배에 모인 지휘관들은 서둘러 새로운 교황을 선출합니다. 교황의 죽음을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교황 선출을 알립니다. 그러자 적들은 갑자기 모든 용기를 잃고 교황의 배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두 기둥 사이에 안전하게 닿을 내립니다. 그러자 바다는 조용해집니다. Don Bosco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적의 배는 박해입니다. 교회를 위해 매우 심각한 어려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은 앞으로 올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많은 혼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작은 영성체와 마리아 신심입니다”».

ADMA 창립 150주년을 맞아 ADMA에게 보낸 총장 Angel Fernandez Artime 신부의 편지는 우리에게 다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교회의 삶과 사명을 지탱하는 두 기둥. 돈 보스코의 꿈에서 길어낼 수 있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마리아는, 삶의 어려운 여정의 끝에서 착한 여주인처럼 젊은이들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후 천상 잔치에 참여하도록 손님들을 초대하는 여인 또는 여왕으로 나타납니다.”

성찬의 잔치는 항구하게 준비되어야 할 완전한 친교의 장소입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친교는 그리스도교 전례의 정점입니다.

살레시오 가족의 일치 현장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와 마리아와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합니다. 성체를 영하고 흠송하는 것은, 돈 보스코의 삶 안에서 힘이었고 위로이며 평화의 샘이고 활력을 주는 불이었습니다. 자신과 젊은이들에게 성체 없는 성덕, 성찬례 없는 거룩함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 도움이신 마리아께서는 살레시오 가족의 근본이 되는 사업에 직접 개입하시어 마리아의 모성애로 둘이 함께 작품을 만드었음을 기억시킵니다. 그것은 돈 보스코의 심오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마리아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마리아를 신뢰합니다. **“성체 예수와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돈 보스코가”** 그의 마리아 신심을 교회의 의미, 베드로의 사도직,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의 단순한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시킨 것처럼, ADMA를 하느님 백성의 단순한 신앙, 젊은이들의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교회적이며 살레시오 가족이 되게 합니다.

지안 루카와 마리안젤라 스페소

가족의 연대기

북베트남 - 살레시오 가족의 날



북베트남 하노이에서 - 2023년 1월 - 살레시오 가족의 날이 1월 11일 살레시오 관구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현재 북부 대표단에는 11개 공동체에서 일하는 48명의 살레시안 외에도 4개의 살레시안 가족 그룹이 있습니다. 25명의 회원이 있는 살레시오 협력자의 센터; 5명의 돈 보스코 자원봉사자; 그리고 120명의 회원이 있는 신자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ADMA)의 두 그룹이 속한다. 이 행사에는 살레시오 청년 운동(SYM)의 몇몇 젊은이들과 살레시안들이 일하고 있는 본당의 대표자들도 참석했다. 북베트남 대표단의 장상인 John Baptist Tran Van Hao 신부는 총장의 Strenna 2023을 발표하고 Don Bosco 미사를 주례했다.

태국 - 도움이신 마리아 성모상의 가정 순례



이탈리아, 토리노 - 2023년 1월 - 1월 15일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대성당에서 양겔 페르난데즈 아르타임 총장 신부가 집전한 미사로 2023년 살레시오 가족 영성의 날이 마무리 되었다. 인상깊은 4일이었다. 이 기간 동안 교회의 큰 가족으로서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살레시오 가족의 32개 그룹 대부분의 주요 책임자가 총장과 함께 Valdocco에서 만났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영성을 나누며 2023년 살레시오 가족 생활지표에 대해 나누었다. “오늘날 인류 가족 안에서 누룩으로. 돈 보스코 가족의 평신도 차원”.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